

여기가 어디냐고?  
**나눔 플랫폼**  
**사랑의열매!**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을 모아 전국 3만여 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나눔문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리**

사랑의열매

ISSUE 186 2022 OCTOBER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2022  
**10**

**이제는  
 환경 복지 시대**

서울시 복지관 중심의  
 필(必)환경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여기가 어디냐고?  
**나눔 플랫폼**  
**사랑의열매!**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을 모아 전국 3만여 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나눔문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6 2022 OCTOBER



2022  
**10**

**나눔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제일주의  
 철학**

사재 300억 원을 출연해  
 에스엘서봉재단을 설립한  
 에스엘(주) 이충근 회장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여기가 어디냐고?  
**나눔 플랫폼**  
**사랑의열매!**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을 모아 전국 3만여 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나눔문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10**

사랑의열매

ISSUE 186 2022 OCTOBER



2022  
**10**

**나눔과 배려로  
 만드는  
 나이스 온(溫)**

대전 사랑의열매 첫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이 된  
 골프존뉴딩그룹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www.sarangiyeolmae.org

여기가 어디냐고?  
**나눔 플랫폼**  
**사랑의열매!**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을 모아 전국 3만여 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나눔문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10**

2022  
**10**



**금융인들의  
 똑똑한  
 나눔 철학**

The Best 착한일터로  
 더욱 빛나는  
 광주은행노동조합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ISSUE 186 2022 OCTOBER

사랑의열매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deuk\_f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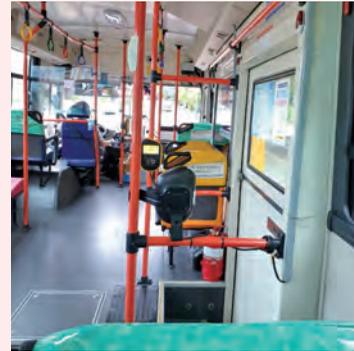
와우~ 사랑의열매 젤리라니!  
즐거탱!!  
젤리를 먹으면 판매 수익금이 기부된다니  
안 먹을 수 없지~  
#사랑의열매젤리 #사랑의열매 #gs25

yeojini\_26



사랑의열매에서 받은 선물.  
기부해서 받았지, 뿌듯해!  
#사랑의열매 #기부 #선물 #기부동참

jsmblue79



8월 22일 에너지의 날  
녹색 교통수단과 텀블러를 사용해요.  
#움직이는소나무 #센스있는소나무  
#녹색교통운동 #에너지의날 #초록열매  
#숲과나눔 #사랑의열매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천 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천 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나눔을 통한 이 행복을  
누구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효주



배우 박효주님은

2010년 10월 경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명절맞이 송편  
나눔, 겨울나기 김장나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끊임없는 나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며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86 2022. 10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임완주 대리와  
환경 캠페이너 최은주, 김해순 씨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10월 / 통권 18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04

### 모두의 나눔

어르신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 10

###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일상생활형 인지 지원 서비스  
'전참시(市) 기억구(區) 기억키움마을'

## 14

### 내 인생의 한마디

국경을 초월한 나눔, 충남 아너 2호에  
빛나는 인우산업조경(주) 전영채 회장

## 18

### 착한 열매슬랭

맛과 인심, 유행까지 다 잡은  
세종시 맛집

## 22

### 착한기업

글로벌 No. 1 체외 진단 전문 기업  
SD 바이오센서(주)

## 26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이웃 위해 마을 찾집 수익금 쾌척한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어르신들

## 28

###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 지원 사업

사랑의열매 한재광 배분분과실행위원  
특별 인터뷰

## 30

### 나눔 이슈

- ① 제4대 세종 사랑의열매 박상혁 회장
- ② 사랑의열매-UWW 아태교육센터  
찾아가는 국제 교육

## 32

### 크라우드펀딩

## 33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 사랑의열매

vol. 186 2022. 10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에스엘서봉재단을 설립한 에스엘(주) 이충곤 회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10월 / 통권 18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04

### 모두의 나눔

어르신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 10

###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일상생활형 인지 지원 서비스  
'전참시(市) 기억구(區) 기억키움마을'

## 14

### 내 인생의 한마디

국경을 초월한 나눔, 충남 아너 2호에  
빛나는 인우산업조경(주) 전영채 회장

## 18

### 착한 열매슬랭

맛과 인심, 유행까지 다 잡은  
세종시 맛집

## 22

### 착한기업

글로벌 No. 1 체외 진단 전문 기업  
SD 바이오센서(주)

## 26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이웃 위해 마을 찾집 수익금 쾌척한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어르신들

## 28

###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 지원 사업

사랑의열매 한재광 배분분과실행위원  
특별 인터뷰

## 30

### 나눔 이슈

- ① 제4대 세종 사랑의열매 박상혁 회장
- ② 사랑의열매-UWW 아태교육센터  
찾아가는 국제 교육

## 32

### 클라우드펀딩

## 33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울산·경북·경남·부산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 사랑의열매

vol. 186 2022. 10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골프존뉴딘그룹 김영찬 회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10월 / 통권 18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 04

### 모두의 나눔

어르신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 10

###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일상생활형 인지 지원 서비스

‘전참시(市) 기억구(區) 기억키움마을’

## 14

### 내 인생의 한마디

국경을 초월한 나눔, 충남 아너 2호에

빛나는 인우산업조경(주) 전영채 회장

## 18

### 착한 열매슬랭

맛과 인심, 유행까지 다 잡은

세종시 맛집

## 22

### 착한기업

글로벌 No. 1 체외 진단 전문 기업

SD 바이오센서(주)

## 26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이웃 위해 마을 찾집 수익금 쾌척한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어르신들

## 28

###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 지원 사업

사랑의열매 한재광 배분분과실행위원

특별 인터뷰

## 30

### 나눔 이슈

① 제4대 세종 사랑의열매 박상혁 회장

② 사랑의열매-UWW 아태교육센터

찾아가는 국제 교육

## 32

### 클라우드펀딩

## 33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전·충북·충남·세종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86 2022. 10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광주은행노동조합 서동욱 사무국장, 이성욱 위원장, 박미연 부위원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10월 / 통권 18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 04

### 모두의 나눔

어르신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 10

###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일상생활형 인지 지원 서비스

‘전참시(市) 기억구(區) 기억키움마을’

## 14

### 내 인생의 한마디

국경을 초월한 나눔, 충남 아너 2호에

빛나는 인우산업조경(주) 전영채 회장

## 18

### 착한 열매슬랭

맛과 인심, 유행까지 다 잡은

세종시 맛집

## 22

### 착한기업

글로벌 No. 1 체외 진단 전문 기업

SD 바이오센서(주)

## 26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이웃 위해 마을 찾집 수익금 쾌척한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어르신들

## 28

###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 지원 사업

사랑의열매 한재광 배분분과실행위원

특별 인터뷰

## 30

### 나눔 이슈

① 제4대 세종 사랑의열매 박상혁 회장

② 사랑의열매-UWW 아태교육센터

찾아가는 국제 교육

## 32

### 클라우드펀딩

## 33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광주·전북·전남·제주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어르신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어르신이 가난과 질병, 외로움 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사랑의열매와 전국 나눔 협력 기관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어르신의 즐거운 일상을 만드는 데 함께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각자 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 섬마을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 행복한 섬 주민(ZOOM IN)

섬은 지리적 특성상 기상 따라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섬마을 어르신은 복지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복지 서비스의 단점으로 이어진다. 이에 진도군노인복지관은 KT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섬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복지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섬마을 어르신께 안정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 것. 덕분에 어르신은 원예, 미술,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섬마을 주민이 복지 조력자 역할을 맡아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고,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며 방역 키트와 상비약 키트를 전달하는 등 단절 없는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다.



1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 원예 프로그램  
2 섬 주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키오스크 교육 실시 3 섬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복지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졌다.





### Mini Interview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사업 담당 문채원

#### 현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 600여 명의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8월부터 주거 환경 개선(안전 바,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골다공증 예방 및 진단 후 질환의 관리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골다공증 질환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 1차 연도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골다공증이 발병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어르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골절된 이후 뒤늦게 인지합니다. 진단을 받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에 자의로 약물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 어르신은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어르신께 검진을 실시해 사각지대에 놓인 골다공증 환자를 건강 안전망으로 유입시키고자 합니다.

#### 기존 사업과 비교해 어떤 점에 차별화를 두었나요?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 PIE)’이라는 관점에서 골밀도 검사를 통해 맞춤형 개별 서비스, 골절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자가, 마을회관 등)을 포괄하는 의료와 지역사회

회 복지가 통합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어르신 한 명이지만, 그 어르신을 통해 주변 사람은 노년기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안전한 환경은 그 집과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도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의 나눔과꿈은 어떤 의미인가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재난 후유증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눔과꿈 지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생길 수 있는 노인의 재난 후유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혁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지역사회 노인의 골격계 질환 집중 관리 모형 개발 사업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이 늘면서 어르신의 신체 활동이 감소되었다.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이 줄면 뼈와 근육의 밀도 및 힘이 감소되어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또 골밀도가 감소하면 골절 위험성이 높아지며, 노년기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은 지역사회 어르신의 골다공증 발병 및 골절 위험을 줄이고자 나섰다.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차 연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골밀도(BMD) 검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2차 연도에는 골다공증 중증화 및 골절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3차 연도에는 중증 확진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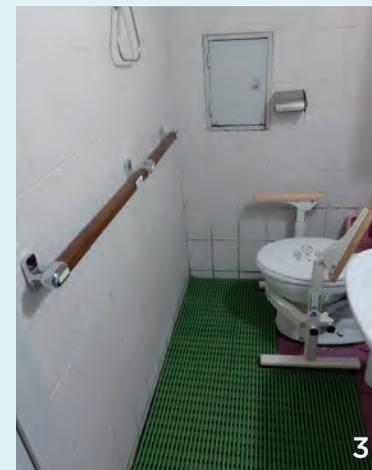
1



2

1 골밀도 검진 중인 어르신 2 검진과 진료를 통해 골다공증을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3 골다공증 확진을 받으면 골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 안전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 4 골다공증 예방 및 진단 후 질환 관리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사진은 어르신께 사업을 안내하는 모습



3



4

## 이웃사랑 안전지킴이 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위험 인식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한다.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지식이 부족하고, 안전 의식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어르신의 안전 의식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웃사랑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작했다. 포스코건설의 후원, 사랑의열매의 지원, 소방청의 협조로 진행 중이다. 사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화재 예방 주거 환경 개선은 주거 취약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간이 소화기, 단독 경보형 연기감지기 등 안심화재예방 키트를 설치 및 지원한다. 또한 위급 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어르신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취약 어르신에게 119안심콜 부여번호가 적힌 119안심팔찌를 제공한다.



1 119안심콜 부여번호가 적힌 119안심팔찌를 착용하는 어르신 2 화재 예방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단 회의



3 소방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어르신 안전 교육 4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화재 예방 키트를 설치하는 포스코건설 임직원 모습



### Mini Interview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조은지 사회복지사

**기존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한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안전 교육은 전담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는 소방청에서 제작한 어르신용 안전 교육 책자와 함께 소방청 임직원이 직접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봉사 활동이 더해져 키트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의 말동무까지 되어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고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본 사업을 같이 꾸려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나요?** 어르신께 전달하는 키트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고 발생 시 어르신이 빠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선정했습니다. 화재 예방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자문위원단 회의를 통해 119안심팔찌 및 화재 예방 키트를 구성했습니다. 덕분에 키트를 받은 많은 어르신께서 집이 매우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상자가 있다면요?** 갑작스러운 헝기증으로 화장실에서 넘어져 응급실 신세를 진 어르신이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어르신은 안전지킴이 대상이 된 게 하늘이 주신 선물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우고, 만약 쓰러지더라도 119안심팔찌에 적힌 어르신의 인적·질병 사항을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한결 안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안전했기에 내일도, 앞으로도 안전할 거라 믿으시는 어르신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잘 몰라서 또는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과 멀어지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본 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물품 하나하나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원 및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



1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일상생활형 인지 지원 서비스  
'전참시(市) 기억구(區) 기억키움마을'

“내 기억을 지키는 건 이제  
바로 나예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그러나 걱정마저도 드러내길 꺼리는 게 현실이다.  
일상 속에서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은 없을까. 글 강은진 사진 김기남

**치매 위험군은 증가하는데**

지난 9월, 한국민속촌으로 나들이를 나온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만났다. 해설자를 따라 삼삼오오 민속촌을 둘러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여기저기서 얼마 만의 외출이라며 감탄하거나, 몇십 년 만에 와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며 추억에 잠기거나, 소풍 나온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에 덩달아 신나했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 예방 관리 능력 강화와 지역사회 치매 통합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일상생활형 인지 지원 서비스 신모델 '전참시(市) 기억구(區) 기억키움마을'(이하 기억키움마을) 정서 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함께하는 세상 나들이' 현장이다.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억키움마을'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이 효과적으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 분당구는 성남시 전체 총노인 인구 비율 대비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노인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성남시 전체 노인 인구 중 치매 노인 수는 1만1,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도 분당구 보건소에 치매 등록 관리 현황(2018년 7월 기준)을 살펴보면 조기 검진으로 치매를 진단 받거나, 치매 환자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노인은 고작 1,732명에 불과했다. 이는 치매 발병 인자를 갖고 있는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어느 때보다 치매 교육 및 자가 진단, 조기 발견 등 치매 예방 관리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접근성과 이미지 제고가 핵심**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의 <전참시(市) 기억구(區) 기억키움마을> 사업명을 보자.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시와 구를 차용했는데, 그만큼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과 관리 체계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 사업명은 물론 프로그램 이름도 최대한 치매라는 단어를 피했다. 치매국가안심제 등 치매는 과거에 비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다. 그러나 완전한 양지화까지는 아직 먼 길이다. 편견이 여전하기 때문. 치매를 의심해도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설마' 하는 생각에 진단받길 꺼린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예방 교육조차 꺼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반해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8년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단 프로그램으로

1 향초 만들기 체험하고 있는 어르신들 2 민속촌 프로그램을 체험 중인 어르신들 3 관람과 체험, 여가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기억키움마을 프로그램



2



3



〈기억키움마을〉사업 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영숙 어르신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밖에 나오니 기분이 아주 좋아요. 얼마 만의 소풍인지 모르겠어요. 복지관 친구들과끼리는 복지관이 아니라 행복관이라고 불러요!”

진행되길 희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88명이 답한 치매가 1위였다. 거기에 어르신들은 고령 등 다양한 이유로 동행자의 도움 없이 장거리 외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집을 중심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2017년부터 ‘뇌美人’이라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어르신들의 현실 욕구가 반영된 기억키움마을이라는 치매 예방 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 치매 예방 대표 프로그램으로 우뚝

기억키움마을 사업은 크게 돌봄, 복지, 보건, 건강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론·두뇌·영양·신체·사회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자기 건강관리능력 강화 프로그램 ‘복지관형 기억키움교실’, 1~2년 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리더 양성 교육 ‘전자적 참견사’, 치매 예방 관련 홍보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건강망을 향상시키는 ‘누구나 쉽게 치매 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기억키움마을〉 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



알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치매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기억키움 한마당’, 치매 돌봄 안전망 형성을 위한 ‘기억키움 마을공동체’ 등이 있다. 기억키움마을 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고 경도인지장애 및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 관내·외 어르신이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치매 예방 교육 및 안전망 구축의 선도

기관으로 우뚝 섰다. 그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교육과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노하우를 축적해 타 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노인 복지관의 역할을 한 단계 넓히며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냈다. ❁



### SPECIAL INTERVIEW

## “나눔과꿈 지원으로 어르신들 디지털 이용 능력 크게 향상돼”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최은정 팀장

**프로그램 구성이 아주 다양인데, 실제 어르신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시뮬레이션 효율, 효순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립된 홀몸 어르신들에게 복약, 식사, 체조 알람 등 건강생활 관리는 물론, 치매·우울증 예방 등 정서 안정 관리 등에 특히 큰 도움이 됐다. 또 성남시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사업 3년 차, 보람된 점은 무엇인가?** 기억키움이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우리 복지관에 브랜드처럼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제법 나서 일반 어르신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 서울이나 인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전라도 광주에서까지 벤치마킹하러 오셨을 땐 담당자로서 정말 뿌듯했다.

**나눔과꿈 지원으로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됐나?** 사회적 변화를 사업 진행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눔과꿈 지원으로 교육을 위한 태블릿 PC와 시뮬레이션 공급, 온라인 콘텐츠 지원 등 스마트 기기를 적극 사용해 디지털 문화에 대한 어르신들의 이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다른 기관보다 2~3년은 빨랐다. 이제는 축적된 노하우를 타 기관과 공유하며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소풍 나온 어르신들의 표정이 좋다. 오늘과 같은 활동은 어떤 효과가 있나?** 정서 활동 중 하나로 일종의 일상 탈출이다. 이런 야외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활기를 되찾아주고, 단체로 움직이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게 한다.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롭다. 또 여러 이유로 그 패턴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아 이런 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

**기억키움마을 사업으로 가장 달라진 점이 궁금하다.**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점이다. 이전에는 마스크업이나 주변 친구 등을 통해 습득한 막연한 정보라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또래 집단이 형성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나눔, 충남 아너 2호에 빛나는 인우산업조경(주) 전영채 회장

# “사람만큼 중요한 건 없기에 오늘도 나눔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날실과 씨실처럼 촘촘하게 엮인 파란만장하던 삶,  
그러나 포기란 없었다.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오늘의 성공을 일군  
전영채 회장의 뜨거운 나눔 이야기.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 인정 넘치는 회장님

인우산업조경(주) 전영채 회장은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충남 논산이 고향인 그는 맨손으로 상경해 샐러리맨의 창업 신화까지 쓴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까지 듣는다면 흔한 성공 스토리일 수 있다. 하지만 전영채 회장은 자신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금껏 이룬 부를 기꺼이 사회와 나누어 왔다. 그리고 그 나눔은 현재진행형이다. “돈을 원 없이 벌어도 봤고, 원 없이 써보기도 하고, 또 휘청일 정도로 잃어도 봤어요. 그래도 이날 이 때까지 헛되게 써본 적은 없어요. 진짜 재산은 돈

이 아니라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도 벌 수 있었구요.” 전영채 회장은 결정적 순간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한다. 돈을 얻고 사람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그가 말하는 사람은 결코 사업적 득실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형제들을 기꺼이 도왔고, 회사로 찾아온 고향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다. 그의 운전 기사는 40년 넘게 근속 중이다. 따뜻한 온정과 넘치는 인심이 전 회장의 삶 곳곳에서 묻어 난다. 그에게 나눔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 끝없는 나눔, 국경도 넘어

전영채 회장은 2011년 충남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2호 회원이다. 또 2014년에는 그의 아내가, 2016년에는 2남 1녀 중 장녀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가족 아너라는 영예로운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아들 둘도 아너에 가입



할 계획이라 충남의 새로운 나눔명문가를 예고한다. 그뿐 아니다. 2008년부터 충남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어온 전 회장은 논산시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매년 캠페인 기간마다 2,000만 원씩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해왔으며, 수시로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겨울이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내의나 양말 등 겨울용품까지 챙겨왔다. 설·추석 명절은 기본이고, 지역 내 굶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힘을 보탠 것도 전 회장이었다.

“2003년부터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있었는데, 그게 서울이었던가 봐요. 하루는 변호사인 고향 후배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냐’며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해 말해주고, 충남 사랑의열매도 알려주더군요. 처음부터 충남에 했다면 아마 제가 1호 아너였을걸요?(웃음)”

몇 년씩 기부해오면서도 타이틀에 개의치 않은 모습에서 사심 없이 나눔을 실천해온 전 회장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나눔은 고향 돕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한 삶

전영채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길봉사회에서 수년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에 봉사와 후원을 해왔고,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연변과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등 북한 교육 지원 활동까지 하고 있다. 또한 그의 아내와 딸은 함께 캄보디아에 기술학교 및 꼬마비전센터 건립 지원금을 후원하는 등 국제적인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전영채 회장 일가의 나눔이다. 이렇듯 북한까지 돕고 있

“돈을 많이 벌어도 봤고, 크게 잃어도 봤지만 헛되게 써본 적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 형제, 자식 다 의상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눠보세요. 우선 마음이 편해요. 정말 편해요! 그게 부자죠, 진짜 부자.”

는 전 회장에게도 남모른 아픔이 숨어 있다.

“6·25전쟁 때 큰형님이 북한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서 못 돌아오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형님이 제겐 아주 각별했거든요. 피난 시절 제가 다리가 아프다면 목말을 태워주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혹했던 시절이었다. 전 회장은 결혼 후 큰 딸을 낳고 출생신고도 채 하기 전에 끌려가 조사도 받고, 감시도 당했었다. 그래도 무섭거나 겁나진 않았다고 했다.

“그땐 배포가 좀 있었나 봐요.(웃음) 자꾸 찾아오는 거 보면서 그저 ‘아, 형이 살아 있구나’ 직감만 했죠. 북한을 돕는 거창한 이유 따로 없어요. 내 형이 살고, 내 조카가 사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전 회장은 2000년 서울 잠실에서 있었던 남북 제2차 상봉식에서 큰형을 만났다.

### 우리가 언제 돈 있었어?

1968년 삼부토건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 전영채 회장은 계열사 사장까지 오른 후, 아동복 전문 브랜드 (주)해피아이를 창업하고 인우산업조경까지 일궈냈다. 한 줄로 짧게 요약한 그의 삶 속에는 결코 요약할 수 없는 숭한 일이 들어 있다. 거친 건설 현장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부상당한 인부들은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재정을 담당할 그의 사무실로 쳐들어오기 일쑤였다. 빨간색 잉크를 뒤집어쓰는 일은 다반사, 흥기로 위협받는 일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인부들을 홀대한 적이 없다. 돌아가는 길에 차비를 챙겨줬고, 경비 일자리라도 알아봐줬다.

“투자가 잘못되어,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휘청이니까 아내가 위로하며 그러더군요. 우리가 언제 돈 있었냐고. 똑섬 신희집도 수해가 나 다 떠내려가고 맨손으로 시작하지 않았냐고요... 그랬어요. 핏덩이 큰 딸 겨우 안고 몸만 빠져나왔으니까.”

전 회장 부부는 이미 장기 기증과 연명 치료 거부 신청까지 모두 마쳤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꾸준히 나누는 삶을 살아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나눔 철학에 대해 물으니, 당연한 일을 뭐라고 답하느냐며 난처해한다. 그런 전 회장의 표정이 참 맑았다. 큰돈을 벌었으되, 스스로 말한 것처럼 헛되게 써본 적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헛되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눔을 퍼뜨리는 전영채 회장이다. ♣



새로운 맛의 수도에서 만나는 착한가게

# 맛과 인심, 유행까지 다 잡은 세종시 맛집

세종시는 제2의 수도답게 새로운 맛집이 가득하다. 외식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을 정도. 맛은 물론 세련된 멋, 따뜻한 인심까지 더한 세종시 착한 맛집을 만나보자. 글감은진 사진사람의열매

## 새로운 빵지순례 명소 몰튼버터

📍 세종시 마음안로 1375동 104호 ☎ 0507-1407-7375  
🕒 매일 08:00~22:00 📷 @molten.butter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유럽의 한 고풍스러운 빵집으로 순간 이동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앤티크한 인테리어에 크리스마스나 할러윈 등 때마다 멋진 장식을 더해 빵을 고르는 손길이 더욱

즐거워진다. 요즘 최고의 빵지순례 명소로 손꼽히는 몰튼버터다. 가게 이름처럼 두툽한 프랑스 구르메 버터 한 조각을 올린 시그너처 빵 몰튼버터와 풍성하고 쫄득한 몽블랑, 달콤 짭짤한 앙버터, 100% 동물성 생크림과 딸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딸기 크루아상까지 맛있는 빵이 즐비하다. 손님마다 시그너처라고 손꼽는 빵이 다 다를 정도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긴 영업시간도 매력적이다. 설·추석

명절은 물론, 각종 행사를 위한 선물 포장도 패브릭 보자기를 사용해 고급스러워 인기 높다.



## 모두를 만족시키는 밥상 고등어밥상

📍 세종시 장군면 월현윗길 38-7 ☎ 0507-1339-8592  
🕒 목~화요일 11:00~21:00(브레이크타임 15:00~17:00, 수요일 휴무)

맛있다, 양이 많다, 친절하다, 인테리어가 멋있다, 반찬이 잘 나온다, 단체 모임하기 좋다, 아이와 가기 좋다, 혼밥 하기 좋다, 가성비 좋다, 부 좋다 등등 좋다는 칭찬이 끊이 없다. 모두 고등어밥상을 직접 이용한 후 영수증 인증을 한 포털 사이트 후기다. 맛부터 양, 가성비는 물론 단체 모임에 혼밥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밥상이 아닐 수 없다. 고등어, 삼치, 갈치, 굴비 등 다양한 생선을 화덕에 구워 촉촉함과 바삭함이 남다르다. 누룽지로 마무리하는 솔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밥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 따로 쌀을 판매할 정도다. 겉절이김치에 장아찌, 잡채, 양배추쌈 등 생선구이와 잘 어울리는 반찬들은



샐러드 바에서 양껏 즐길 수 있다. 5월부터 9월까지 맛볼 수 있는 계절 메뉴 참소라물회도 별미! 일부 메뉴는 밀키트 판매 중이다.



## 고소한 전 냄새가 부른다 도화빈대떡

📍 세종시 보듬3로 91 해피라운4 117호 ☎ 0507-1433-0247  
🕒 화~금요일 10:00~24:00까지, 토요일 16:00~24:00(일요일 휴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갓 부친 노릇한 전 한 점에 시원한 막걸리 한 모금이 간절해진다. 도화빈대떡은 주문과 동시에 바로바로 부쳐낸 전 맛이기가막히다. 고급스러운 육전, 오동통한 새우전, 담백한 버섯전에 동태전, 갯잎전, 고추전 등 취향대로 즐길 수 있다. 겨울이면 맛보는 굴전도 일품이다. 이 밖에도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맛깔난 홍어무침과 어묵이 냄비 한가득 담긴 오뎅탕 등 안주류도 알차다. 기본 찬으로 제공하는 무생채나물과 오이부추무침, 양파장아찌가 자칫 기름질 수 있는 전의 맛을 깔끔하게 잡아준다. 점심 특선으로만 판매하는 콩나물비빔밥은 6000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해 인근 직장인에게 인기다. 🍀



글로벌 No. 1 체외 진단 전문 기업 SD 바이오센서(주)

# 생명을 지키는 모든 시작은 나눔에서 시작합니다

SD 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의 영웅'으로 일컫는 기업이다. 각종 질병과 신종 바이러스를 조기 판별할 수 있는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 공급부터 전문적인 PCR 검사 개발까지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글강보라 사진 SD 바이오센서(주)

2020년 기부금 전달식 및 경기 8호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1



2

SD 바이오센서 조영식 회장은 “우리는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고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개발한다”라는 신념으로 직원들의 연구·개발을 독려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자’는 비전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빛을 발했다. 실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 진단을 함으로써 인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생명을 지키는 모든 시작’이라는 SD 바이오센서의 슬로건은 사회 공헌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020년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 중이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성금 1억 5,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 코로나19 최전선에 선 방역 파수꾼

SD 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세계 최초로 WHO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이기도 하다.

SD 바이오센서는 자가검사키트 개발 및 공급을 바탕으로

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기부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에 30만 개의 키트 기부를 시작으로 서울 은평구, 부천시, 건국대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 릴레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기부한 자가검사키트는 의료 취약 계층 및 감염 취약 시설에 우선 지원하며, 현장을 지키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선제 검사 목적으로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SD 바이오센서의 기부는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를 냈다.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의 노인과 환자뿐 아니라 당시에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12세 이하 아동들의 선제 검사로 요긴하게 사용했다. 지난겨울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보건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 경량 패딩 재킷 280벌을 기부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다.

### 코로나19 세대의 교육 격차를 줄이다

“컴퓨터가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수업을 듣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어요.”

- 원격 수업 중인 초등 3학년 A군



3

1 세계 최초로 WHO EUL을 획득한 SD 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 제품 사진 2 SD 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PCR 시약 제품 사진

3 SD 바이오센서 기업 광고의 한 장면



비대면으로 진행한 유니세프 기금 전달식 모습. 전달받은 기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에 따라 심화된 학습 격차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부모 가정인 A군은 보호자의 실직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없었고, 휴대폰으로 원격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휴대폰으로는 문서 작업을 할 수 없어 과제를 하지 못하고, 학습 진도 역시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었다. A군 외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사량이 낮은 컴퓨터로 접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SD 바이오센서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눔명문기업 성금과 임직원이 모은 착한ilter 기부금을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온라인 학습 지킴이 지원 사업'에 내놓았다. 성금으로 경기 도내 아동·청소년 332명에게 최신 노트북을 지원했다. 아이들은 지원받은 컴퓨터로 학교 숙제도 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도 문제없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SD 바이오센서의 지원은 소득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줄일 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미래 사회를 살아갈 꿈나무들에게 든든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 나눔과 봉사로 채운 당신과 나의 거리

SD 바이오센서는 단순한 나눔과 기부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 공헌을 지향한다. '핑크박스 챌린지' 역시 그렇다. SD 바이오센서의 자가검사키트 구매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인증 1개당 10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취약 계층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구매자들과 함께 자가검사키트를 기부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으로, 100명이 참가해 1,000회 검사 분량의 자가검사키트를 미혼모 시설에 기부했다. 구매를 통해 기부까지 연결되는 의미 있는 이벤트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도 2년 연속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 대회 기간 중 3번 홈에서 선수가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스탠다드 큐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 100개의 적립을 약속했다. SD 바이오센서가 후원하는 지한솔, 김수지, 안지현, 송가은, 유해란, 이소영 프로가 참석한 이 대회는 후원사로서 힘을 보탠 것이다. '3번 홈 버디 이벤트'를 통해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

자가검사키트 9,000세트를 기부했고, 올해에는 서울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SD 바이오센서의 임직원은 홀몸 노인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 봉사에도 참여했다. 코로나19로 봉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전해 듣고 직접 나선 것이다. 임직원 30여명은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일대 홀몸 노인 가정에 연탄 4,000장을 배달했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언덕길에 사람들이 들어서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하는 따뜻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날 홀몸 노인 가정에 배달한 것은 이웃을 생각하는 훈훈한 온기였는지 모른다.

### 기술혁신으로 의료 격차 타파

SD 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약 180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로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의 비전대로 중저소득 국가에 'HIV·매독 항원 진단 키트'를 합리적인 공급가로 제공해 신속하게 HIV·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 번의 검체 채취로 20분 이내에 HIV와 매독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의료 시설이 열악한 국가에 꼭 필요한 진단 테스트 기기다. 매독은 현재 전 세계 사산 원인 2위로, 아프리카 사산 발생 비율의 11%를 차지하는 질병이다. 매년 수십만 명의 매



1 '2021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버디 이벤트로 1억 원 상당의 자가검사키트를 기부했다. 2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경량 패딩을 기부하며 진단 현장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3 산비탈의 홀몸 노인 가정으로 연탄을 나르는 SD 바이오센서 임직원의 봉사 모습

독이 산모에게서 아이로 감염되어 사산, 선천적 결함, 신생아 사망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SD 바이오센서의 공급은 중저소득 국가의 산모가 임신 기간 중 미리 검사를 받고 적시에 치료해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검사가 필수인 상황에서 간단한 진단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여성과 아이를 보호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SD 바이오센서의 기술혁신으로 의료 격차를 타파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SD 바이오센서는 사람과 세상의 거리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 격차와 의료 기술의 격차를 줄이며, 신속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결과의 오차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SD 바이오센서의 사회 공헌 활동은 이웃 모두가 마음 놓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





부여군청에서 있었던 기부금 전달식의 (왼쪽부터)이선정 사무장, 박정현 부여군수, 박남순 이사

이웃 위해 마을 찾집 수익금 쾌척한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어르신들

“진작 할 걸 그랬어유~”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림책마을에서 그림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바로 나눔이다.

글 강은진 사진 송정그림책마을

### 군청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

지난 7월, 부여군청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다. 바로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주민 어르신들이다. 이들은 마을 찾집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는 큰 회사나 단체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끼리 마음을 모았죠. 알았으면 진작 했어요!”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박남순 어르신은 뜻깊은 일에 동참하니 기분이 참 좋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송정그림책마을 이선정 사무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는 방문객을 위해 마을 찾집을 중심으로 할머니 도시락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정의 수익금이 있는데, 보다 뜻깊게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어요.”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거라며, 몰라서 못 했다고 말이다.

### 인기 만점, 송정그림책마을

부여군 양화면 송정마을은 평균연령이 80세가 넘는 주민 40여 명이 살고 있는 오래된 작은 마을이다. 하지만 이곳은 어느 시골 마을처럼 쇠락하는 느낌을 찾아볼 수 없다.

송정그림책마을은 찾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을 늘 북적이는 송정그림책마을은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참관신청이 밀릴 정도로 성공한 케이스로 통한다.

집과 골목 사이마다 아기가자기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마을을 사랑했던 주민들이 2015년부터 <문화예술>을 테마로 그림책마을 사업을 시작해 23명의 주민들이 직접 한 권씩 그림책을 만들고, 찾집을 열어 전시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마을 살리기에 나선 덕이다. 현재 송정그림책마을은 봄가을이면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마스크에도 솔하게 소개되고 있다.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 참관신청이 몰릴 만큼 성공한 케이스로 손꼽힌다.

“어르신들과 부여군청을 방문했을 때 전달식 장소를 안내 받기 위해 복지과를 찾아갔는데, 다른 부서들도 함께 있는 큰 사무실이라라고요.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아시고 직원분들이 환호해주시는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이선정 사무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한다며 활짝 웃었다. 그림책만큼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다. 🍀

사랑의열매 한재광 배분과실행위원 특별 인터뷰

#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우크라이나 난민에 지속적 관심 필요”

사랑의열매는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 피란민 긴급 구호 사업(이하 피란민 긴급 구호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제개발협력기관간협의회를 통해 배분이 이루어지며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하트-하트재단이 현지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사랑의열매는 6박 9일간 해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온 사랑의열매 한재광 배분과실행위원에게 우크라이나 피란민 긴급 구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루마니아에서 진행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사랑의열매 배분위원으로 해외 현장 점검을 다녀왔는데, 배분위원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번 현장 점검의 목적은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 피란민 긴급 구호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 NGO 단체들의 활동을 중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체들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 분야 활동가들은 지금까지 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이나 전쟁, 내전 등 인적 재난에 대응하는 활동을 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은 유럽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서 본 피란민 긴급 구호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요?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온 복잡하고 힘든 삶을 잠시 본 외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도시에서 식료품과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루마니아 거리와 기차역 등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쉼터, 식당과 도움을 알리는 여러 문구를 보았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긴급 구호 지원 사업에 수행 기관, 배분 협력 기관 등 많은 기관이 합



어린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아동 친화 공간

께하는 가운데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개발 NGO들이 규모나 전문성 면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만,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항상 큰 고민입니다. 사랑의열매가 오랫동안 적지 않은 규모로 지원해준 덕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보니 사랑의열매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도적 지원 사업 특성상 빠른 지원 결정이 필요한데, 사랑의열매의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이뤄져 도움이 됐다는 루마니아 월드비전 대표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현장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먼저 루마니아에서 활동하는 굿네이버스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굿네이

버스는 호텔을 임대해 우크라이나 난민 100여 명에게 안전한 숙소와 식사 그리고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부모와 함께 피란 온 어린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아동 친화 공간 제공과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진 점입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물리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을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안정을 돕는 접근 방식이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에서 활동하는 한국 월드비전의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 월드비전은 월드비전 루마니아와 협력해 식료품과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전시장 롬엑스포(RomExpo)의 한 시설을 대여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방문한 난민들에게 지원품과 간단한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몰도바 수도인 키시너우에서 활동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어떤 상황인지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 소속의 이탈리아 기관인 위월드(WeWorld)와 협력해 난민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식료품과 위생용품은 물론 아동 친화 공간을 설치하고 심리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마침 방문한 날 어린이들이 캐릭터 복장의 배우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가 하면,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등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을 텐데, 그중 <사랑의열매>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끝나지 않는 전쟁, 늘어나는 우크라이나 난민, 부유하지 않은 난민 수용국... 이런 상황이 종합되면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압박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들 그리고 사랑의열매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식료품을 전달받는 우크라이나 난민



한재광 사랑의열매 배분과 실행위원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해외 분야 현장 전문가다. 오랫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발전대안 피다 대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시민사회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사랑의열매 배분과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4대 세종 사랑의열매 박상혁 회장

# “나눔으로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세종 사랑의열매 박상혁 회장이 취임했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세종첨단산업단지(주) 대표이사를 맡은 그는 2019년 세종 아너 소사이어터 14호로 가입해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다. 글 이선희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세종 사랑의열매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종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역할을 맡은 만큼, 지역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부 문화 확산과 많은 시민이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씩 활동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한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및 법인 기부 활성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의 도시 세종시를 건설하고, 자연스러운 사회 공헌 활동까지 연결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나눔으로 하나되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배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 시민이 모아주시는 성금이 어려움에 처한 이

웃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회장님의 나눔 철학은 무엇인지요?** “나눔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제가 아너 소사이어터 가입 당시 새긴 나눔 메시지입니다. 이 말 속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 활동은 지역이 소통하게 하고, 주민들 간의 믿음을 싹틔우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나눔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4대 박상혁 회장 취임식



박상혁 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에 위치한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와 세종첨단산업단지(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세종시상공회의소 부회장, 세종시장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는 등 세종시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지난 9월 1일에 진행된 세종 사랑의열매 박상혁 회장 취임식

‘사랑의열매-UWW 아태교육센터’ 찾아가는 국제 교육

# 한-베 수교 30주년 사랑의 열매-베트남의 나눔 생태계 리더를 인큐베이팅하다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랑의열매-UWW 아태교육센터’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베트남 NPO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아태교육센터는 United Way Worldwide(UWW)와 사랑의열매의 협약에 의해 2010년에 설치된 글로벌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교육은 베트남 노동보훈 사회부와와의 협력 아래 United Way 베트남, 베트남 NPO 종사자 및 복지 관련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베트남 NPO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선 생태계 구축 및 변화 모델 공유 (Creating Trends, Leading Changes for a Sustainable Vietnam)’를 주제로 사랑의열매 김효진 기획조정본부장(아태교육센터장), 한상춘 기획조정본부 팀장, 송정민 사회공헌본부 팀장, 충북 사랑의열매 장성일 배분팀장, 총북 사

랑의열매 장성일 배분팀장, UWW 양후영 부대표가 교육을 맡았다. 사랑의열매는 공동 모금 제도와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략적 모금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한편, 배분 사례를 공유하며 그들이 베트남 버전의 나눔 생태계 모델을 설계해나가는 데 시사점을 주고자 했다. 호찌민은 베트남 최대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모금 기관들이 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에 따른 모금 전략에 관심이 컸기에, 지속 가능 목표 및 ESG의 흐름에 발맞춘 모금회의 기부 브랜드 등 시스템 설계에 무게중심을 두어 세션 내용을 전달했다. 아태교육센터는 향후 베트남 NPO 네트워크가 정부와 협력해 자국의 임팩트 어젠다를 설정하고, NPO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면서 나눔문화 발전을 위한 브랜드 및 모금 전략을 수립할 때 지속적인 컨설팅 및 연계를 도울 계획이다. ♡



사랑의열매 김효진 기획조정본부장(아태교육센터장)



사랑의열매 한상춘 기획조정본부 팀장



사랑의열매 송정민 사회공헌본부 팀장



충북 사랑의열매 장성일 배분팀장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 양후영 부대표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장애 청소년 체육 꿈나무를 지원하는 펀딩을 공개했다.

글이선희 사진사랑의열매



**장애 청소년 체육 꿈나무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지원을 보내주세요.**

**모금 기간** 2022년 10월 31일~12월 31일

**목표 금액** 250만 원

**모금 사용** 훈련비 및 훈련 장비 지원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캠페인 클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 장애 청소년 체육 꿈나무 지원사업 “우리만의 속도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체육 유망주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전국 체육대회가 끝나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비록 응원목 소리가 작고, 스포트라이트도 적지만, 선수들은 오직 이날만 기다리며 고된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체육 꿈나무도 많지요. 이 아이들이 자라 어엿한 선수로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때 많은 이의 뜨거운 응원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

# 10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강원





— 회원종합사회복지관의 환경 캠페이너 최은주, 김해순 씨와 임주완 대리(왼쪽부터)

환경 불평등 해소 및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는  
필(必)환경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 이제는 환경 복지 시대

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문제가 됐다. 환경오염에 노출된 취약 계층의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서울 사랑의열매가 나섰다. 글강은진 사진서법세, 서울 사랑의열매

16개 기관이 함께한 환경 프로젝트

지난 9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회원종합사회복지관의 '지구상점'을 찾았다. 이곳은 구로구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스툴로 삼베 행주, 천연 대나무 칫솔, 천연 설거지 비누, 코코넛 수세미, 면 비누망 등 다양한 친환경 물품을 전시 및 판매하며, 판매 수익금을 기후위기(폭염, 폭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언제든지 이곳을 방문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회원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은 물론, 상인들과 손잡고 지구상점뿐 아니라 친환

경 캠페이너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 실천 가게 발굴, '전통시장 일회용 없는 날' 캠페인 등 '필(feel) 꽃힌 필(必)환경 구로 프로젝트'를 통해 구로구를 친환경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서울 사랑의열매 기획 사업 '필(必)환경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재 회원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 도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등 서울 소재 16개 기관이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필(必)환경 시대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람이 외부 활동을 멈추자 지구환경은 되살아났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자 비대면 소비 습관, 방역 수칙 준수 등으로 일상 속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쓰레기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소득 차이, 공간 배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환경 피해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도 불평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환경문제 인식을 강



— 구로구 회원종합사회복지관의 '지구상점'

화하고, 취약 계층의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약 1년간 총 8억 원의 예산 규모로 <필(必)환경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환경 교육은 물론, 탄소 중립 및 자원순환 사업, 복지관 내 자원순환 시설을 구축해 지역사회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 환경 복지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



— 회원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상인들과 연계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만들어간다.

수행 기관별 필(必)환경 도시 만들기 주요 프로젝트 LIST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지역사회 환경 인식 향상을 위한 '필(必)환경 노인복지관 만들기' 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99개 사회복지관 환경 운동 실천 강화를 위한 '필(必)환경 사회복지관 만들기'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환경 인식 개선 및 환경 리더 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환경 복지 문화 확산
- 방이골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여성의 생태 시민성 함양을 통해 기후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봉구 생태전환실천연구소 만들기
-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채식 요리 강습 및 채식 일상 실천 등 저탄소 식단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등 헬리시티 주민 3만 명이 실천하는 환경 재생 프로젝트 '같이살지구'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내 환경 운동 실천을 위한 자원 순환 주민 환경강사 양성 사업 '슬기로운 환경생활'
-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제로 웨이스트 실천 중심의 주민 밀착형 친환경 마을 만들기 '우리가 그린(Green)마을'
-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 아동·청소년 가족 중심의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 인식 개선 활동가 양성'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경력 단절 여성 주인의 '그린리더' 양성과 활동을 통해 마을 내 자원순환 문화 확산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주민과 상점, 복지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쓰레기 없는 신월동 만들기
- 회원종합사회복지관 '전통시장 일회용 없는 날' 캠페인 등 상인들과 지역 주민의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프로젝트
-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자원순환 실천 및 지역단체·소상공인과 연계한 생태마을 조성 '자만추' 프로젝트
- 서초구양재노인종합복지관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 환경 보전 의식 향상 등 복지관 직원과 이용 어르신이 만드는 '필(必)환경 복지관'
- 도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구조 만들기
- 서울환경연합 지역사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제비의 텃밭'

각계각층 참여하는 '인천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

# '구청장부터 첫돌 아기까지 이웃 위한 한마음'

나눔으로 아이들 꿈을 응원하는 멋진 일에  
각계각층의 인천 시민이 나섰다. 구청장부터  
첫돌을 맞은 아기까지 마음을 모았다.

글강은진 사진인천사랑의열매



나눔리더 인증패  
전달식에 참석한  
김지우 양 가족

## 인천 나눔리더, 200호 돌파

인천 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인천을 이끌어가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이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오는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나눔리더란 1년 내 100만 원 이상 기부·약정한 개인 기부자를 위한 모금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인천 시민이 동참해왔다. 2017년 전국 최초 인천시의회 의원 34명 전원이 나눔리더에 가입한 후, 전문직여성클럽(BPW) 회원, 인천벤처기업협회 회원, 푸른세상안과 의료진 등 단체 가입이 줄을 잇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도성훈 교육감 100호 가입, 부평소방서 양승용 소방공무원 119호 가입, SSG랜더스 김상수·최주환 선수와 웹툰 <트리거> 불만있냥(예명)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가 가입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의 시작도 뜻깊었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이 인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번째로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인천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200호 돌파를 알렸기 때문이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나눔리더 200호 가입으로 캠페인 성공에 힘을 보탬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 최연소 나눔리더 탄생

박종호 남동구청장을 이어 이제북 인천보훈지청장이 '인천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에 두 번째로 가입하며 나눔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제북 인천보훈지청장은 "캠페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인천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동참할 것을 권했다. 최연소 나눔리더도 탄생했다. 지난달 9월 첫돌을 맞은 김지우 양이 주인공이다. 아빠 김준규 씨는 "첫돌을 기부로 기념하면 아이에게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았다"면서, "우리 가족을 보고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나눔리더에 가입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인천을 이끌어가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으로 모은 성금은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 지원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



박종호 남동구청장의 인증패 전달식에 참석한 김의식 인천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박종호 남동구청장,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왼쪽부터)



나눔리더 인증패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 중인 이제북 인천보훈지청장(왼쪽)과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

“이번 캠페인에 각계각층의 많은 인천 시민과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해 나눔으로 아이들 꿈을 응원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사랑의 송편 빛기, 물품 꾸러미 등 추석 명절 지원 사업 진행한 경기 사랑의열매

“이웃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매년 추석 명절 지원 사업을 펼쳐온 경기 사랑의열매가 올해도 이웃의 풍요로운 명절을 위해 나섰다.

글강은진 사진경기 사랑의열매

매년 이어진 추석 지원

경기 사랑의열매가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외 계층 이웃을 위해 4억 2,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매년 추석이면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명절 준비가 어렵고 외롭게 지내는 이웃들이 보다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친 상황에서도 명절 지원은 이어졌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내 각 시군의 복지수요에 맞춰 명절 음식이나 생필품은 물론,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 2021년에는 3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며 추석 명절 지원사업은 계속됐다. 모두 4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한 이번 추석 명절 지원 사업은 지역별 복지 수요에 맞춰 상품권, 명절 음식, 생필품 세트, 홍삼 세트, 명절 음식 꾸러미(송편, 과일, 쌀, 간편 식품 등) 등을 경기남부 21개 시군 지역 소외 계층 이웃에게 전달했다.

재개된 대면 행사, 뜻깊어

경기 사랑의열매의 이번 추석 명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진행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임직원의 '사랑의 송편 빛기' 행사가 대표적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경기 사랑의열매 임직원들은 모두 둘러앉아 이웃에게 전달할 송편을 빚었다. 맛있게 만든 송편은 명절 선물 꾸러미와 함께 수원시 화서동에 거주

경기 사랑의열매 임직원이 직접 빚은 송편은 수원시 화서동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다.



경기 사랑의열매 직원들의 사랑의 송편 빛기 생생 후기

“추석 명절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 분위기까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은숙 사무처장

“코로나19로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직원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서로 정을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 이수진 대리

“한복을 입고 송편을 빚으니 명절 느낌이 물씬 나고 새로웠어요. 다문화 가정의 이웃들이 송편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 민소리 주임

하는 다문화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명절 선물 꾸러미를 받은 아니타 린 다(가명) 씨는 “전해주신 따뜻한 추석 선물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직접 만들어주신 송편

을 맛있게 먹겠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은 “이번 추석 명절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차량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복지기관 노후 차량 41대 정비비 지원

“다시 안전하게 복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복지기관의 노후 차량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많은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글강은진 사진경기북부사랑의열매



1



2

1 정비 중인 복지기관의 노후 차량 2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대중교통 열악한 특성 고려

후원 물품 전달 및 결식아동·어르신 대상 도시락 배분과 송영 업무 등을 맡아 온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의 16년 된 승합차, 이용자의 병원 및 학교 등하교 지원, 물품 상하차 등을 위해 달려온 포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아의집의 14년 된 승합차,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북부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의 15년 된 승합차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노후된 차량을 수리받고, 다시 안전하게 복지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북부 소재 사회복지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취약 복지 기관 차량 정비비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이 열악해 차량을 이용한 복지 서비스가 많은 경기북부의 특수성과 이로 인해 상

“차량 수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정비비 지원 사업으로 이용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사전 안전 확보가 가능해져 좋았습니다. 특히 차량관리법과 차량 기한에 따른 사전 점검 사항 등을 별도로 교육받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노후 차량을 지원받은 동두천 소재 복지 기관 관계자



대적으로 차량 연식과 잔고장이 많으나 수리비를 지원받을 곳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기획했다.

노후 차량 41대 수리비 지원해

취약 복지 기관 차량 정비비 지원 사업은 기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사업의 효용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림대학교 미래

자동차공학부 김필수 교수를 중심으로 손해사정사,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자동차공학 및 교통학 분야 전문 교수진 등이 포함된 차량 전문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심사평가위원회는 1차 서류 검토와 2차 전수 현장 점검을 통해 기관에서 신청한 결함 외에도 차량 운전 안전 위험 요소를 추가로 확인해 차량 정비 내역에 포

함되도록 정비 컨설팅도 진행해주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 수리를 지원받은 동두천 소재 장애인 시설 관계자는 “정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차량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용자 및 지역 주민에게 더욱 안정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강원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진태 강원도지사

#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도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글 강은진 사진 강원 사랑의열매

김진태 강원도지사 명예회장 추대식과 함께 진행된 강원 사랑의열매 추석명절지원사업 전달식



## 명예회장 추대패 전달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지난 9월 5일, 강원도청 본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대식을 진행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임기 동안 강원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며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된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참석이 대표적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 강원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서 캠페인 시작을 알리며 나눔 메시지와 캠페인 기부 전달식, 주요 내빈과 함께 사랑의온도탑 점등 등을 통해 기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연중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해 기부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격려할 예정이다.

## 이웃에게 희망 전할 터

추대식에서 추대패를 전달받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도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예회장으로 강원 사랑의열매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강원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와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앞으로 강원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서 도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며, 나눔으로 하나 되는 강원도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하며, “강원도의 나눔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대식 2부 행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명절 지원 사업 전달식도 진행했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강원도 내 저소득 가정 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보다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추석 명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약 4억 원 규모로 모두 9,631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직접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

10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 사재 300억 원을 출연해  
에스엘서봉재단을 설립한  
에스엘(주) 이충곤 회장

에스엘서봉재단을 설립한 에스엘(주) 이충곤 회장

# “기업 경영도, 나눔도 결국 사람이 제일이라”

1967년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청년은 부친이 설립한 회사에 입사하면서 스스로 세 가지를 맹세했다. 대구·경북에서 제일 큰 기업으로 키울 것, 복지 기업이 될 것,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사회에 환원할 것. 55년이 지난 지금,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에스엘(주) 이충곤 회장의 이야기다. 글이선희 사진이승재, 대구 사랑의열매

### 나와의 약속을 지킨 나눔

1954년故 이해준 회장이 설립한 에스엘(주)은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며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지역사회에선 에스엘(주)을 대구·경북에서(재벌 기업을 제외하고) 규모가 제일 큰 기업이자 지역을 위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는 기업이라고 소개한다. 실제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10억 원을 비롯해 매년 연말 캠페인에 많은 성금을 기탁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9 위기 극복 성금 5억 원 등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2006년에는 이충곤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에스엘서봉재단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총 300억 원의 출연금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 설립 이유를 묻자 그는 “젊은 시절부터 계획한 일”이라며 “회사가 지속 성장의 시기에 들어서야 사회 공헌 또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는 답이 돌아왔다.

### 이 시대 참여론의 면모

이충곤 회장은 어른들에게 “사람이 여물어야 돈을 잘 모은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런 그의 주머니에서 푼돈도 아니고 3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나갔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기부할수록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지며, 보람까지 느끼니 이보다 돈을 더 잘 쓰는 일이 있을까요.” 에스엘서봉재단을 통해 소외 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부터 학술 연구 활동 지원, 지역 인재 육성 장학 사업까지 성과 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에스엘(주) 경영 초기부터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이충곤 회장이 확고히 지켜온 인간 제일

주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기업 경영도, 나눔 실천도 결국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첫째로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말하며, 그것이 곧 인간 제일주의 실현이라고 했다. 철학은 사라지고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 요즘,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굳건히 지키며, 행동으로 옮긴 이충곤 회장에게서 이 시대 진정한 참여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

“세상을 밝히는 희망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다음 세대가 밝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합니다.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에스엘(주) 이충곤 회장



— 지역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량 전달식

코로나19 함께 극복 행복키트 지원

# “안전하게 풍요로운 한가위를 선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이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았다. 이에 울산 사랑의열매는 우리의 이웃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 사랑의열매



1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께 함께 극복 행복키트를 전달한 모습  
2 (왼쪽부터) 코로나19 함께 극복 행복키트 지원 사업 전달식에 참여한 울산 사랑의열매 조진호 사무처장(왼쪽)과 울산노인복지관협회 이성호 회장

### 이웃에게 전한 풍성한 행복

지난 8월 23일 울산 사랑의열매는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기획 사업 '코로나19 함께 극복 행복키트 지원 사업'(이하 함께 극복 행복키트)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울산 소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총 20개 사회복지 직능 단체·협회를 대표해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에 총 7억 9,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물가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 전달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20개 사회복지 직능 단체·협회를 통해 장애인·어르신·다문화 가정·아동 등 울산 내 다양한 이웃에게 전달했으며, 대상별 수요에 맞춰 생필품, 명절 꾸러미, 코로나19 방역 물품 등을

“명절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울산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어려움과 문제에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울산 사랑의열매 조진호 사무처장

키트로 구성했다. 또한 함께 극복 행복 키트에 들어간 물품은 울산 지역 업체에서 80% 이상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다.

###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극복'

함께 극복 행복키트 전달식에서 울산 사랑의열매 조진호 사무처장은 “명절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울산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어려움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사랑

의열매는 지난해 총 161억 8,000여만 원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노인, 위기 가정, 장애인, 여성·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배분했다. 올해는 178억 원을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을 위해 배분하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재확산 시점에 '코로나19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총 2억 1,000만 원을 발빠르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의 코로나19 노출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방역 효과를 극대화했다. ❀



전국 최초 4000호 탄생

# 나눔문화의 새 역사를 쓴 경북 착한가게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4,000번째 착한가게가 탄생했다. 2007년 1호 가입을 시작으로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연평균 260개소가 가입하며 경북의 따뜻한 나눔문화를 이끌어가는 '착한가게'의 지나온 길을 되짚어본다. 글이선희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경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4000호 (주)청도굿스파 현판 전달식



1 2015년 탄생한 착한가게 1000호 카페 에스포와  
2 경북 칠곡군에서 탄생한 착한가게 2000호 밝은해인테리어  
3 3000호 주인공이 된 경북 울진군 청하반점

## 소상공인이 만든 따뜻한 희망

경북 사랑의열매의 착한가게 4000호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경북 도내 이웃을 생각하는 모두의 마음이 모여 만든 결과다. 경북 사랑의열매는 2014년부터 매년 5~7월에 '착한가게 릴레이 캠페인' 및 '소중한 다수의 기부,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나눔봉사단이 주축이 되어 착한가게 가입을 독려하고, 신규 기부자를 발굴해 소상공인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가입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100여 개소 이상이 늘어나는 등 경북 나눔문화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생계비, 의료비 외에도 성평등을 위한 여성 관련 지원, 환경보호 사업,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큰 힘이 된다. 어려운 경제 여

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복지를 위해 소중한 마음을 모아준 소상공인이 있어, 경북의 미래는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하다.

## 경북 착한가게 1000호 카페 에스포와

2007년 1호 탄생을 시작으로 8년 만에 경북 착한가게 1000호가 탄생했다. 안동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카페 에스포와가 그 주인공. 특히 이곳은 저소득 자활 참여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바리스타 교육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 경북 착한가게 2000호 밝은해인테리어

1000호 달성 2년 만인 2017년에 경북 칠곡군에서 2000호가 탄생했다. 2000호 영예를 안은 밝은해인테리어 김희종 대표는 "도움을 준 많은 분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이를 되갚는 한편, 이웃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가입 소감을 전했다.

## 경북 착한가게 3000호 청하반점

2019년 5월 경북 울진군청에서 착한가게 44개소가 동시에 가입했다. 동시 가입함으로써 당시 울진군이 경북 도내 착한가게가 세 번째로 많은 나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소 남다른 봉사과 선행을 펼쳐온 손병철 대표의 청하반점이 3000호로 선정되며 많은 이의 축하를 받았다.

## 경북 착한가게 4000호 (주)청도굿스파

경북 착한가게 1호 탄생 15년 만에 4000호를 달성했다. 4000호 주인공은 경북 청도 이서면에 위치한 (주)청도굿스파. 평소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많던 이재봉 대표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가입하면서 전국 최초 4000호가 탄생한 것이다. 🍀



경남 금융권 최초 나눔명문기업 가입

# BNK경남은행의 지역 맞춤형 나눔 실천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BNK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의 지속적인 나눔 행보가 올해 들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4월 최홍영 은행장이 취임식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BNK경남은행의 온기와 빛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실제로 다양한 사회 공헌에 나서며 ‘보살핌의 울타리’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경남 사랑의열매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BNK경남은행 최홍영 은행장과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이  
함께한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 지역 대표 금융기관의 남다른 나눔

지난 8월 18일 BNK경남은행 본점에서 경남 나눔명문기업 8호 가입식이 진행됐다. 이로써 BNK경남은행은 경남 지역 금융권 최초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나눔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입식에 참석한 최홍영 은행장은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 서며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뿐 아니라 사회 공헌 사업을 적극 펼쳐 지역사회와 가치를 나누는 동시에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해 사회 공헌 활동비로 239억 원을 지출하며 지역사회·공익 및 메세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5년 연속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맞춤형 활동으로 전개하며 지역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 미지급 경품으로 복지관

#### 승합차 구입 지원

2021 BNK아구사랑정기예금 고객 중 경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3,200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해당 지원금은 장애인 이동 및 도시락 배달 등 원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승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 함께 걸으며 여성 위생용품 성금 마련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립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나눔 걷기 기부 챌린지’에 임직원과 가족들이 동참했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총 5,200만 걸음을 채워 성금 500만 원을 조성했다. 해당 성금은 경상남도일시청소년심터에 여성위생용품 구입 및 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 실버 카페 지원 사업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도청 본관 1층에 자리한 실버 카페에 시설 장비 구입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경남은행 영업부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실버 카페 ‘카페아리가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 소외 계층과 소상공인을 함께 보듬는 나눔

지난 8월 경남은행은 창원사랑상품권 총 1억 원을 창원특례시에 기탁했다. 상품권은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창원 지역 소외 계층 1,000세대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경남은행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함께 보듬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자 했다.

### 이웃을 위한 풍성한 한가위 선물

추석을 앞두고 경남은행에서 진주시 소외 계층 보살피기에 나섰다. 총 5,0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탁해 진주시 저소득층, 1인 가구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 계층 1,000세대에게 풍성한 명절 선물을 전했다. 🍁



창원 지역 소외 계층 1,000세대에 전달한 창원사랑상품권



— 나눔명문기업과 함께하는 깨끗한 부산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전달식

나눔명문기업이 함께하는

## 깨끗한 부산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 강화에 나섰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분야 외에도 환경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클이선희 사진부산 사랑의열매

### 환경까지 생각하는 나눔명문기업

최근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취약 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복지 현장에서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 사랑의열매는 '나눔명문기업과 함께하는 깨끗한 부산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ESG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 부산 나눔명문기업이 힘을 보탤다. 부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44개(2022년 9월 기준) 기업이 전달한 성금으로 조성한 2억 1,300만 원을 부산의 환경을 지키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회(social) 분야는 물론 환경(environment) 분야까지 나눔명문기업의 ESG 경영 실천 범위를 확장해 복지 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지속 가능한 부산을 위하여

지난 8월 22일 부산 사랑의열매는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깨끗한 부산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비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나눔명문기업 기부자 대표로 코렌스그룹 조용국 회장,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김보수 관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이 참석했다. 코렌스그룹 조용국 회장은 “건강한 부산,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은 “기업에서 마련해주신 귀한 성금이 깨끗한 부산을 만드는 데 잘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원금은 사회복지 기관 및 환경 단체 일곱 곳에 전달했으며, 1년간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감소 등 다양한 자원 순환 활동을 진행한다. ♡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부산,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렌스그룹 조용국 회장



—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나무에 부산 사랑의열매의 활동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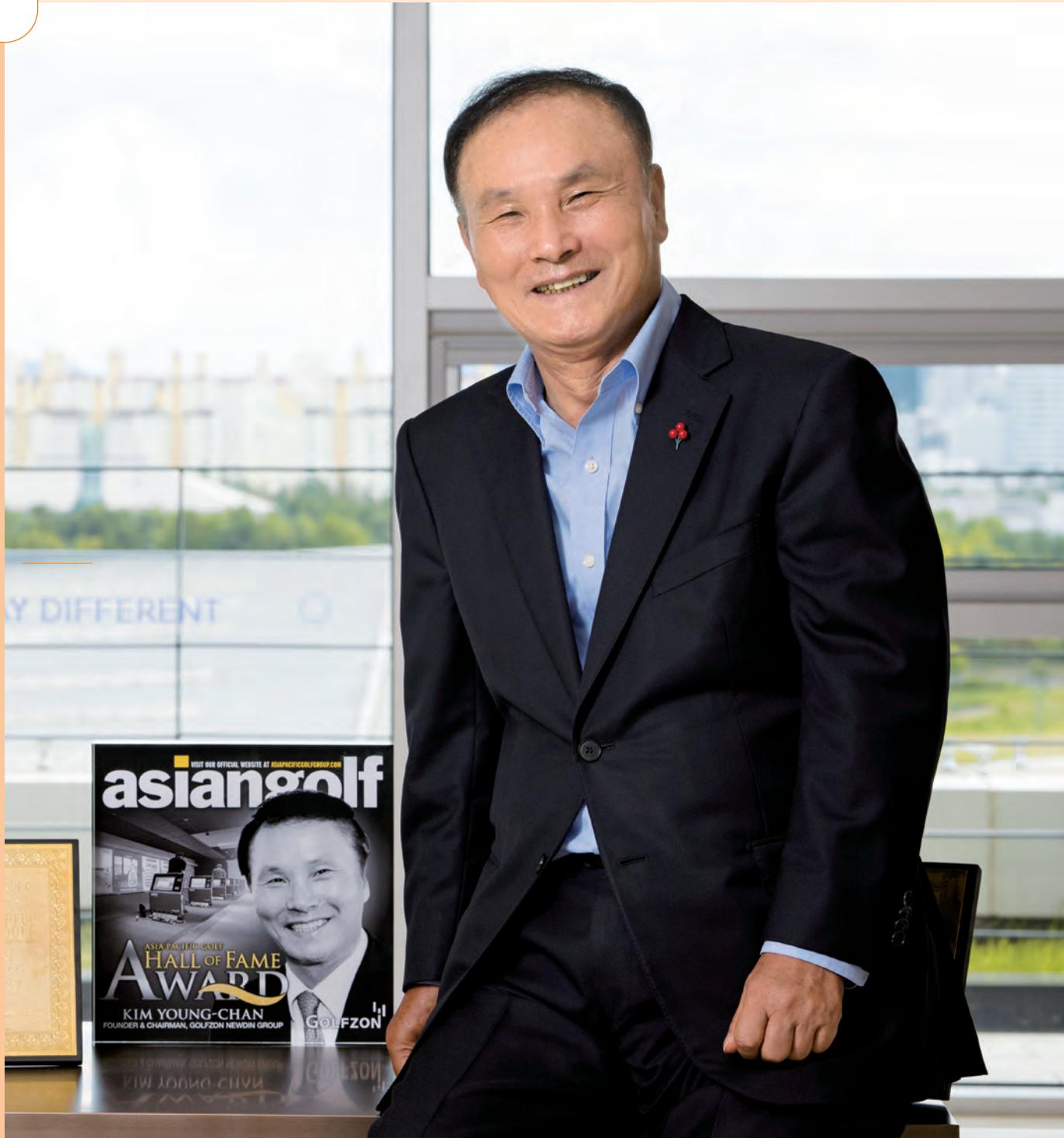
— 코렌스그룹 조용국 회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김보수 관장(왼쪽부터)

10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최초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 가입

# 골프존뉴딘그룹 김영찬 회장의 나눔과 배려로 만드는 나이스 온(溫)

2000년에 설립한 스크린 골프 벤처기업 골프존은 현재 매출액 약 1조 원 규모의 골프존뉴딘그룹으로 성장했다. 골프존뉴딘그룹의 김영찬 회장은 대한민국 벤처기업계 입지전적 인물로 경영 행보를 주목받아왔다. 특히 지역사회를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나눔 경영에 비상한 관심이 쏟아진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골프존뉴딘그룹, 대전 사랑의열매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기업**

골프존뉴딘그룹은 22년 전, 직원 5명으로 시작해 현재 2,000명이 넘는 정도로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왔다. 스크린 골프 사업을 넘어 아카데미 사업, 골프장 운영, 골프용품 유통, 거리 측정기 및 IT와 스포츠를 접목한 VR 콘텐츠 개발 등 골프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국내 골프 스포츠 대중화와 글로벌 골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찬 회장은 골프존뉴딘그룹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눔과 배려의 경영 철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동반자와 함께 즐기는 골프의 특징처럼, 주변 사회·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믿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경영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골프존문화재단과 유원골프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후원과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골프존뉴딘그룹은 지난 2021년에는 대전 사랑의열매에 2년 연속 5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첫 번째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 10억 원의 이웃 돕기 성금은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골프존뉴딘홀딩스, (주)골프존, (주)골프존커머스 등 주요 계열사가 함께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당 성금은 이웃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했다.

**문화 예술 후원 사업을 통해 조선  
철화분청사기의 가치 재조명**

김영찬 회장은 2010년 '골프존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 예술 및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 공주 지역의 고유 문화유산이자 한국 3대 도자기 중 하나로 꼽히는 계룡산철화분청사기 보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계룡산철화분청사기 백서>를 발간하고, 철화분청의 개요 및 역사적 고찰과 고고학적 분석 등 다양한 연구 자료를 집대성했다. 이후 백서 발간에 이은 2차 사업으로 우수

1 2019년에 진행한  
골프존뉴딘그룹 임직원  
봉사 활동  
2 골프존문화재단이  
개최한 2019 희망행복나눔  
페스티벌  
3 G-HEART-U  
헌혈 캠페인

도예가 및 회화가와 함께 '계룡산철화분 청사기 컬래버레이션 레지던시 사업'을 전개했다. 백서 제작 당시 밝혀낸 철화 안료를 사용해 현대적인 미감을 살린 향아리, 접시, 다완, 다기 등 200여 점의 의미 있는 작품을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 고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자 진정성 있게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김영찬 회장은 2022년 공주시 명예시민에 위촉되었다.



### 골프 꿈나무 발굴과 세계적 선수 육성 지원

골프존뉴딘그룹 김영찬 회장에게 '꿈나무 발굴 및 유망주 후원'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나눔 활동 중 하나다. 2015년 사재를 출연해 유원골프재단을 설립하고 골프 꿈나무를 후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장학금을 전달받은 초·중·고 학생 인원은 누적 230여 명에 달한다.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중·고등학교 골프부에 최첨단 실내 스크린 골프 GDR 시스템 기증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에 갓 입문해 스폰서가 없는 유망주를 육성하는 역할도 그의 몫이다. 지속적인 후원과 함께 골프존 레드베터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실력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 결과 김한별, 김동은, 류제창, 박희성, 신상훈, 최호영, 배용준, 함정우, 성유진, 조아연 등의 선수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김한별 선수는 2020년 4월부터 골프존 후원으로 투어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그해 KPGA 투어에서 2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김동은 선수도 2020년 정규 투어에 데뷔, 2021년 5월 군산CC오픈에서 데뷔 2개 대회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 인연을 맺은 최혜진 선수는 코리안 투어 대회를 거쳐 현재 미국 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김성현 선수도 KPGA와 JPGA에서 맹활약을 펼친 후 올해 9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했다.

이러한 김영찬 회장의 선수 육성을 위한

관심과 후원은 프로 선수로 성장한 유망주들의 후배 사랑으로 이어지며 골프 업계 선순환 나눔문화를 조성했다. 최혜진, 성유진은 유소년 시절부터 프로가 되기까지 후원해준 유원골프재단에 각 2,000만 원을 기부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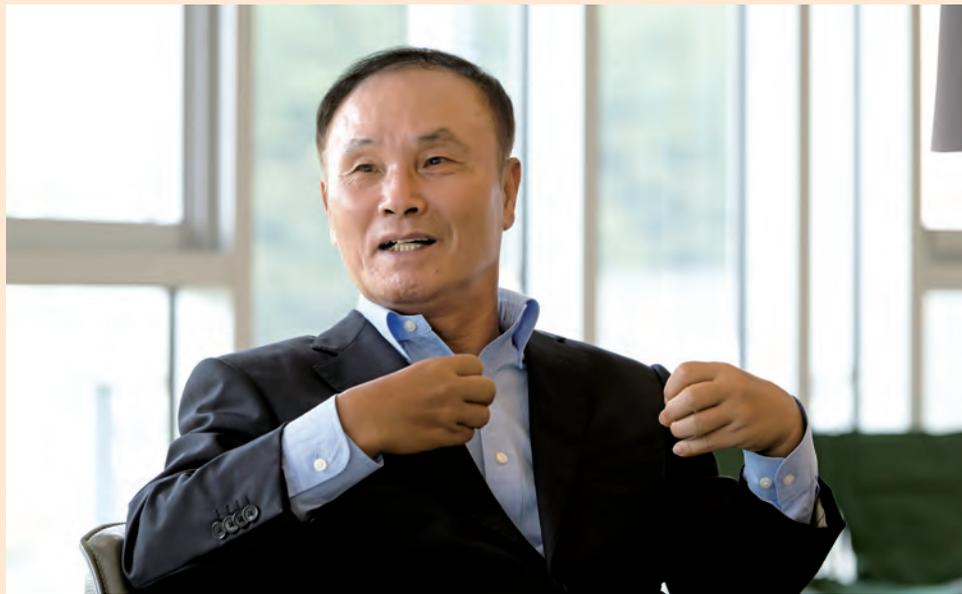
### 고용 창출을 통한 상생 경영

김영찬 회장은 골프존뉴딘그룹이 사회와 지속해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2021년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경영연구팀에서 발표한 '스크린 골프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무형 효과 분석' 연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 산업 취업 유발 효과는 2018년 기준 1만 8,640명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골프존뉴딘그룹이 자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를 조사한 결과, 2019년에 비해 2021년의 고용이 15% 증가한 2만 5,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R&D 센터 투자를 통한 전문 기술·산업 인력 양성·신입 사원 공채 지속 시행·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가족 친화 경영·워라밸 중심의 복지 제도 운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그룹 대표 CSR 캠페인 'Swing Your Dream'을 전개해 100여 명의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이 골프존뉴딘그룹 계열 사별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이 외에도 도심 속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환경 구축을 위한 한강 숲 조성 캠페인 'On Green 캠페인', 전자 임직원이 참여하는 'G-HEART-U' 헌혈 캠페인 등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회 공헌 활동이 많다. 골프존뉴딘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김영찬 회장이 가치 경영과 나눔 경영을 구색 맞추기로 내세운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더 기대된다. 진심을 다한 그의 나눔 경영이 대전 지역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또 어떤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다. ♡



충북 사랑의열매와 청주시가족센터가 함께한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

# “찰칵, 다문화 가족의 행복을 찍어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문화 가족. 그러나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족사진 한 장을 갖기 어렵다. 추억할 수  
있는 가족의 오늘을 남겨보자.

글강은진 사진충북 사랑의열매

은 물론, 문화적 차이와 생활고, 가족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요구도 조사(2021)에 따르면, 기초 생활 및 경제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따라서 여가 생활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문화 여가 활동 참여 기회조차 크게 감소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청주시가족센터는 각자의 사정으로 고군분투하는 다문화 가족에게 점검과 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 관리 상담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청주시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

### 행복한 추억 만들기

충북 사랑의열매가 청주시가족센터의 다문화 가정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번 기획은 청주시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한국어 의사소통

##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 대상 가정 후기

“우리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원래 살던 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 잘 해결하고... 지금은 선생님께서 연결해주신 생활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가족사진 촬영을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아이와 저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도 다시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해요!”



1 아버지는 중국에 체류 중이라 실질적인 양육은 조모가 하고 있는 5인 조손 가구(필리핀) 2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 된 3인 가구(필리핀)



화 가족은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답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이다.

### 가족 중심으로 진행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아닌 대상자인 다문화 가족이 주체가 되어 촬영 일정 조율부터 액자 수령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평소 생업 때문에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부모와 자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생겨났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20가족이 참

여했으며, 가족당 1회기로 산정해 총 20회기 진행했다.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가정별 개성을 살렸으며, 액자 뒤편에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구로 직접 작성해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도록 배려했다.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은 긍정적 피드백은 물론, 큰 만족도를 나타냈다. 청주시가족센터는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문화 차이를 넘어 청주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도내 저소득층 위한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의 멈춤 없는 사회 공헌

# “충남 도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폭넓은 지원을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충남사랑의열매

이번 추석, 명절맞이 농축산물 꾸러미를 기탁한 충남세종지역본부



## 매년 이어진 김장 김치 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이하 충남세종 지역본부)의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나눔으로 충남 도내 저 소득층 이웃을 돕고 있어 훈훈함을 더한다. 김장 김치 후원이 가장 대표적이다. 충남세종지역본부는 매년 충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겨울철이면 김장 김치를 지원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김장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이웃이 보다 수월하게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 시군 푸드뱅크를 통해 2,300만 원 상당의 김장 김치를 470가정에 10kg씩 전달했다. 또 2021년에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김치 가공 공장에서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해 김장 김치 1만 박스(박스당 10kg)를 전달했다. 이어 12월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김치 행사를 개최해 1,000만 원 상당의 김장 김치 250박스(박스당 10kg)를 직접 포장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비롯 장애인 가정에 추가로 전달하기도 했다.

## 나눔캠페인도 함께해

김장 김치 후원은 올해도 계속됐다. 2022년 7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무료 급식소를 돕기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김장 김치 200세트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을 섬세하게 챙겼다. 충남세종지역본부의 사회 공헌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희망2022나눔캠페인 첫 시작에 맞춰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냉동 만두 3,950박스과 김장 김치 300박스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꾸러미를 충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또 이번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이 보다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도록 2,00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꾸러미를 후원하기도 했다. 이번 명절 꾸러미는 도내 시군별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충남세종지역본부 이종욱 본부장은 “도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종 회장은 “매년 도내 취약 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하며, “소중한 물품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1 한국농협김치 200세트 기부 전달식  
2 매년 이어오고 있는 충남세종지역본부의 김장 김치 후원 사업

“충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도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이종욱 본부장

도움받던 이웃에서 도움 주는 이웃으로 거듭난  
세종시의 특별한 기부자 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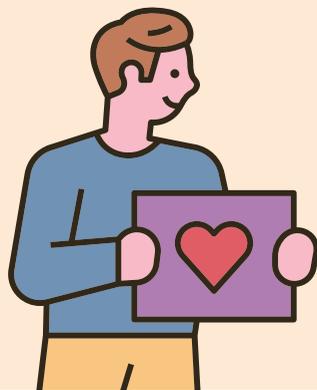
# “진짜 사랑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도움을 받던 이웃이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도움을 주는 이웃으로 거듭났다.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은 따뜻한 주인공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세종사랑의열매



세종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한 김 모 씨의 나눔리더 가입식



## 조금 특별한 기부자들

세종 사랑의열매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던 이웃이 도움을 주는 이웃으로 거듭나 기부를 실천한 것이다. 조금 특별한 이 나눔의 주인공은 모두 4명으로, 3명은 나눔리더에 가입하고, 1명은 정기 기부로 매달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세종시 소정면에 살고 있는 김 모 씨다. 지난 8월, 김 씨는 500만 원을 기부하며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105호로 가입했다. 그는 2015년 실명 위기에 놓였을 때, 세종 사랑의열매를 통해 긴급 지원 사업 의료비 100만 원을 지원받아 안과 수술을 받고, 비록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을 보존할 수 있게 돼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생활비 등을 아끼며 돈을 모아 고마운

“어려운 형편인데 늘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기부자님들이 귀하게 모아주신 성금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저도 아끼고 아껴 적은 돈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 세종시 전의면 권 모 할머니

세종 사랑의열매 이경아 사무처장(왼쪽)과 나눔리더로 가입한 전영민 씨



마음과 빛진 마음을 갖고 싶어 500만 원의 성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달라며 세종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김 씨는 “내가 위급할 때 받은 지원금 100만 원은 나의 눈을 살려준 만큼 100만 원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돈이다”면서, “나처럼 이런 돈이 필요한 이웃이 많을 것 같아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도움받은 고마움, 잊지 못해

김 씨에 이어 같은 달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67호로 가입한 세종시 고운동에 살고 있는 전영민 씨도 훈훈함을 더한다. 가입식에서 전영민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명절 때 잊지 않고 명절 지원금을 보내주시는 등 작은 격려금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재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며, 수익금의 일정액을 기부해 나눔리더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익명의 기부자도 있다. 세종시 전의면에 살고 있는 장 모 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며 100만 원을 일시 기부해 나눔리더 76호로 가입했다. 이후로도 수시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어 현재까지 모두 192만 원을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또 세종시 전의면의 권 할머니도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받아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2021년 4월부터 매달 1만 원씩 정기 기부를 해오고 있다. 권 할머니는 “경제가 어려운데 매년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해주고 고맙다”면서, “기부자님들이 귀하게 모아주신 성금인 것을 알고 나도 아껴서 매월 1만 원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세종시의 특별한 기부자 4명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

10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KJ BANK

지역을 위한 나눔,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은행노동조합

“이익 이상의  
가치로 항쟁과  
나눔 정신을  
잇겠습니다”

광주은행노동조합의 조합원만큼 광주를 잘 아는  
사람들도 드물다. 광주 시민으로 뿌리내리고 살며  
지역을 위해 일하기 때문. 그래서 지역을 위한  
나눔이 일상처럼 자연스럽다.

글 강보라 사진 김기남





“노인을 위한 복지는 광주를 일군 선배들에 대한 존경이고, 어린이를 위한 복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교육입니다. 노인과 어린이가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 이성욱 위원장

**광주은행노동조합과 호프(Hope) 한 잔**

광주은행노동조합은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이라는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사랑의 호프데이(Hope-Day)' 행사다.

“2004년 처음으로 결식아동 돕기 일일 호프(hof)를 열었는데, 이제는 광주 시민과 조합원들이 즐기는 나눔 이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OB맥주와 보혜소주처럼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과 연대해 더 의미가 깊은 행사입니다.” - 이성욱 위원장

이후 누구나 가볍게 맥주(hof)를 즐기며 내일의 희망(hope)을 꿈꾸는 행사로 발전하며, 광주 시민을 위한 시민한 '호프(Hope) 한 잔'이 되어주고 있다.

자체 행사 외에 지역사회 복지 후원에도 열과 성을 다해 “광주은행노동조합과 손잡지 않은 복지 기관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번은 사회복지회 나눔 행사에서 만난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님이 '여기에도 참여하냐'고 물으며 '광주은행노동조합은 도대체 어디까지 돕고 계시냐'며 놀라시더라고요.(웃음)” - 이성욱 위원장

광주은행이 5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지방 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 이처럼 이웃과 상생하며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 앞서 동참했기에 얻은 값진 결과인 것이다.

**나눔의 교본이 된 연말정산 내역**

광주은행은 광주 사랑의열매가 선정한 'The Best 착한일터'다. The Best 착한 일터는 임직원 50% 이상이 정기 기부에 동참하며 급여의 일부를 나누는 기업을 말한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지점별로 취합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데, 그때 살펴보면 기부금 영수증이 참 많아요. 저도 신입 시절에 선배들의 기부 내역을 보며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우게 되었죠.” - 정동욱 사무국장

연말정산 내역을 나눔의 교본으로 활용할 정도로 조합원 모두가 다양한 나눔과 기부를 실천 중이다. 이성욱 위원장은 “금융에 밝은 사람이라면 기부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부를 해도 환급을 통해 결국 돌려받거든요. 개인 손해 없고,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기분까지 좋아지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오월의 정신’은 광주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는 민중항쟁을 뜻하기도 하지만, 기본 바탕에는 나눔이 자리한다. 길을 가는 시민에게 주먹밥을 나누고, 현혈로 피를 나누며 투쟁하듯 광주 시민인 광주은행노동조합원들의 DNA에도 나눔이 짙게 배어 있다. 지역 상생과 나눔의 가치로 ‘광주의, 광주에 의한, 광주를 위한 은행’다운 행보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본다. ♡

1 나눔에 대한 공로로 광주장애인총연합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은 광주은행노동조합 이성욱 위원장의 모습 2 광주은행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랑의 호프 데이(Hope-Day) 행사 3 광주 사랑의열매 온도탑을 훈훈하게 만드는 광주은행노동조합의 성금 후원 모습



21년째 지역 사랑 실천

# 밥심처럼 든든한 전북도시가스(주)의 나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다. 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밥이 주는 포만감과 든든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전북도시가스(주)가 21년째 명절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백미를 전달하는 이유다.

글 이선희 사진 전북 사랑의열매



### 한층 따뜻해진 명절 밥상

전북도시가스(주)는 1982년 설립해 전주, 완주, 김제 등 전북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의 대표 향토 기업이다. “지역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을 위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김홍식 대표의 나눔 철학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한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중에서도 특히 21년째 이웃의 명절 밥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랑의 쌀 나눔이 대표적이다. 2002년에 시작해 매년 설과 추석이면 전북 사랑의열매에 쌀을 기탁한다. 올 추석에도 2,000여만 원 상당의 백미 480포를 기부하며, 변함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전북도시가스(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백미는 전북 도내 소년소



지난해 추석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한 전북 사랑의열매 김동수 회장(왼쪽)과 전북도시가스(주) 김홍식 대표

“지역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을 위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 전북도시가스(주) 김홍식 대표

녀 가정, 가정 위탁 세대, 1인 가구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장애인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나

전북도시가스(주) 나눔 활동의 원동력을 꼽자면 단연 사내 동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연중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이 뜻을 모아 매월 정기적으로 이웃 돕기 성금을 후원하는 등 말 그대로 임직원 전체가 나눔 실천에 적극적이다. 직원들이 직접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며 명절 인사를 건네는 것도 전북도시가스(주)만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정도. 그 외에도 장애인 센터에서 텃밭에 작물을 키워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생활비에 보탠다는 것을 알고 직원들이 직접 감자를 식재해 정성 들여 키운 후 수확까지 돕는 봉사 활동을 한 단원부터 외출할 기회가 적은 이웃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단원까지 이웃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꺼이 따스한 손길을 내민다. 그래서 전북도시가스(주)의 나눔이 더욱 따스하며 든든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

사랑의 쌀 배달에 나선 전북도시가스(주) 임직원 자원봉사단



# 꿈과 희망을 전하는 (주)스타테크의 끝없는 나눔 실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시작으로 착한일터, 나눔명문기업 가입까지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곳이 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주)스타테크의 이야기다. 글 이선희 사진 전남 사랑의열매

(주)스타테크 착한일터 가입식 모습



##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행복

지난 2019년 12월,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이 전남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실 박원균 회장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매년 사회복지시설 및 새터민 가정·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부터 다양한 진로·진학 체험과 안전한 문화 활동을 제공해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박 회장은 아너 가입식에서 “전남의 더 많은 복지 대상자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아너 가입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시작한 사랑의열매와의 인연은 단숨에 돈독해졌다. 지난 7월에는 박원균 회장과 (주)스타테크 직원 20여 명이 전남 사랑의열매에 정기 기부 약정을 맺으며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가입식 당시 박원균 회장은 “힘든 시절을 겪어왔기에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큰 행복이다”라며 “이 행복을 소중한 직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 지역에 또 한 번 전파한 선한 영향력

지난 8월 22일, 여수시청에서 전남 사랑의열매와 (주)스타테크는 또 한 번 나눔 인연을 맺었다. (주)스타테크가 1억 원 약정 기부에 가입하며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이 된 것. 착한일터 가입 후 불과 한 달 만이다. 가입식에는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 참석한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 정기명 여수시장(왼쪽부터)

“임직원과 함께하는 착한일터부터 나눔명문기업까지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쁩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

장, (주)스타테크 박원균 회장, 정기명 여수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원균 회장은 “임직원과 함께하는 착한일터부터 나눔명문기업 가입까지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은 “박원균 회장님과 (주)스타테크가 추구하는 나눔의 의미를 알리며 든든한 사회 공헌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칠 줄 모르는 (주)스타테크의 나눔 행보가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자못 기대된다. ♡

2022 모금 역량 개발 교육 진행한 제주 사랑의열매

# 지역사회 기부 자원 발굴 위한 학습의 장

A부터 Z까지 모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2022 제주 사랑의열매 모금 역량 개발 교육이다.

글강은진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모금 역량 개발 교육에 참가한 23명의 도내 사회복지 기관 실무자



## 모금에 대한 모든 것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제주 사랑의열매의 '2022 모금 역량 개발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사회복지 유관 기관 등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 중인 실무자 23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제주 지역 모금 환경 특성을 반영한 모금 역량 개발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모금의 핵심 기술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모금의 개념과 기본 원리', '모금 홍보의 이해', '투명성을 담은 후원자 예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채널 관리', 모금캠페인 기부요청 등 모두 9강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 제주 사랑의열매 심정미 사무처장,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상임이사 등 강사진도 전문가를 초빙했다. 무엇보다 한국모금가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돼 모금의 기본 원리부터 모금 홍보, 모금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보다 풍부한 이론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 실무자 역량 개발에 큰 도움

교육을 이수한 실무자들의 반응은 무척 긍정적이었다. 평소 모금에 대한 부담이 크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 강사진을 만나 교육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이번 교육은 한국모금가협회 협력으로 진행해 보다 풍부한 모금 이론을 배울 수 있었다. 사진은 강의 모습

“전문성과 진정성 넘치는 강사님들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A 교육생 후기

“모금이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결합돼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B 교육생 후기

모금을 해보고 싶다면 도전 의식을 내비치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처럼 제주 사랑의열매의 모금 역량 개발 교육은 지역사회 맞춤형 기부 자원 발굴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위한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교육을 주최한 제주 사랑의열매는 제주 지역의 특화된 환경에 초점을 맞춘 만큼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원 개발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역량 개발은 물론, 현장에서 작은 시도가 다양하게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까지 모금 제안 기획 실습도 진행한다. 전문 강사진의 자문이 더해진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실습을 통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원 발굴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11월에는 실습 결과를 종합한 성과 공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전국 2949호(부산 277호)



허정은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나눔은 축복입니다.”

전국 2952호(광주 143호)



김경 (주)에이플러스에셋 상무  
“나눔문화를 이끌어가는 아너 소사이어티  
일원으로 함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전국 2955·2956호(대구 207·208호)



최우각·박경남(주)대성하이텍 회장부부  
“나눔과 배려는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2960호(경기 289호)



정양숙 (주)이앤이 대표이사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걸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전국 2951호(경남 147호)



김준연 (자)동원유지 전무이사  
“나눔으로 만든 행복이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전국 2954호(대구 206호)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대표이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전국 2959호(인천 164호)



우성명 (주)반찬단지 대표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부산 익명

전국 2966호(대전 101호)



이경채 경북한의원·의원 원장  
“기부는 행복의 선순환입니다.”

전국 2969호(중앙 368호)



박원일 페어윈드코리아 대표  
“나눔이란 따뜻한 情의 교감입니다.”

전국 2967호(광주 142호)



김해란 옥과한우촌 대표  
“그동안 받았던 도움과 사랑을 다시 주변 이웃을 위해 나누면서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2970호(대구 209호)



故 황옥  
“따뜻하게 품어주시던 어머니가 계셔서 오늘날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선물을 받고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들 최병일 아너(대구 178호)



(왼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명근 (주)성우하이텍 회장, 조성현 (주)성우하이텍 사장

“가족과 함께 나눔에 참여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 나눔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2971호(부산 279호) 이명근 (주)성우하이텍 회장, 전국 2972호(부산 280호) 민미라,  
전국 2973호(부산 281호) 조성현 (주)성우하이텍 사장, 전국 2974호(부산 282호) 이보람 (주)성우하이텍 전무  
전국 2975호(부산 283호) 한창훈, 전국 2976호(부산 284호) 이아람

중앙회

삼성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건립 추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 충청북도, 충북아동복지협회가 지난 9월 6일 보호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의 건립 및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희망디딤돌은 만 18세가 되어 국가의 보호 체계에서 독립해 사회로 나오는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 자립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주거 공간 제공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삼성의 사회 공헌 사업이다. 2016년 부산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11월 전남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각 센터에 입주한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자립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누적 1만2,839명에 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립을 추진하는 충북센터는 2023년 말 개소 예정으로, 건립 예정지인 청주에는 충북 지역 자립 준비 청년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운영비 50억 원을 지원하며, 사랑의열매는 3년간 센터 건립 및 사업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소규모 복지 기관에 회계 교육 지원**  
 지난 9월 20일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 이영숙)가 사랑의열매와 '찾아가는 회계 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연간 예산 규모가 3억 원 이하인 전국 소규모 배분 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적인 세무·회계 교육을 실시해 기관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사랑의열매는 교육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고, 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는 기관별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숙 회장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소규모 복지시설에 전문 지식을 나누는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무·회계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많은 소규모 기관이 복잡한 회계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랑의열매도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2022년 제1차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여성분과 모임 개최**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2022년 제1차 여성분과(위원장 조현옥)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옥 위원장 외 여성 아너 회원 4명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이 참석해 '여성이 미래를 바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의 활동과 미혼모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분과 회원들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이월드, 착한소비 업무 협약 체결**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이월드를 운영하는 사이월드제트가 서울 사랑의열매와 착한소비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사이월드 서비스 내 선물 가게에 등록된 사랑의열매 전용 미니미와 다이얼리 유료 스킨 판매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기부금은 '사이좋은 사람들, 사이월드'라는 기업 이념에 맞게 여러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부산



**추석 명절맞아 특별 생계비 6억 원 지원**  
 부산 사랑의열매가 부산 지역 저소득 가정에 추석 명절 특별 생계비 6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부산 시민의 정성이 담긴 성금으로 마련했으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1만1,125세대와 쪽방 거주민 875세대에 각각 5만 원씩 전달했다.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은 "급격히 상승한 생활 물가 탓에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8개 부산기업,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부산 사랑의열매가 폭우 등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했다. 이에 금양상선(주), 삼정기업, 세운철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선보공업(주), (주)골든블루, 태금정(주), (주)디알종합건설 등 8개 기업이 총 3억 7,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성금은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다.

대구



**북성새마을금고, 대구 200호 착한일터 가입**  
 북성새마을금고(이사장 안재영)가 대구 사랑의열매 착한일터 200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월 2일 열린 가입식에는 안재영 이사장 및 임직원, 류혜영 칠성동장 등이 참석했다. 착한일터는 직장의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직장인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북성새마을금고의 성금은 칠성동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쓸 예정이다.



**(주)동헌메탈 김창연 대표이사, 어머니 장례 조의금 기부**  
 (주)동헌메탈 김창연 대표이사가 별세한 어머니故 이진남 여사의 장례 조의금 5,200만 원 전액을 이웃사랑 성금으로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김창연 대표이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지난 2월 아녀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기부도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기뻐하시며 칭찬해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



**(주)반찬단지 우성명 대표, 아너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글로벌 반찬 전문 기업 (주)반찬단지의 우성명 대표가 인천 사랑의열매 164호 아너로 가입했다. 지난 2021년 ‘인천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에 선정된 (주)반찬단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반찬 제품과 성금을 꾸준히 기부해왔다. 우성명 대표는 “밥은 반찬과 먹어야 더 맛있듯이 기업도 지역과 상생해야 성장할 수 있다”며 “나눔으로 박수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개항동 가게 13곳, 착한가게 단체 가입**  
 개항동 가게 13곳이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하며 인천 사랑의열매 착한가게가 2007년 1호 가입 이후 15년 만에 2000호를 돌파했다. 개항동 착한가게 대표들은 “우리의 기부가 인천 중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2000호 주인공인 나나통상 조세욱 대표는 “좋은 일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하도록 주변 가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돌봄 이웃 청소년 장학금 전달**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광주 지역의 돌봄 이웃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정창선 회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의 꾸준한 기부 참여는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 사랑의 1004 운동 성금 기탁**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및 치료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 1004 운동’을 통해 모금한 성금 3,3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광주구에 거주하는 104세대에 수술·치료비로 지원했다. 농협광주본부는 사랑의 1004 운동을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738명에게 총 5억 5,400만 원 상당의 수술·치료비를 지원했다.

대전



**추석 명절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배분**  
 대전 사랑의열매가 대전시(시장 이장우)에 추석 명절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업비는 저소득 가정 및 쪽방 거주민, 이주 외국인인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대전 관내 3,366세대와 2개 기관에 지원했다. 이장우 시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성금을 모아주신 대전 시민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경북한의원 이경채 원장, 아너 가입으로 대전 첫 나눔명문가 탄생**  
 경북한의원 이경채 원장이 대전 101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부부 아너인 경북한의원 이순호 대표원장과 포어스 김명순 대표의 뒤를 이어 자녀 이경채 원장이 아너에 가입하며 대전 사랑의열매 1호 나눔명문가가 탄생했다. 이경채 원장은 “저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그 사람이 또다시 나눔을 이어가는 선순환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이 '안녕안정·염포 만들기' 사업 기금 5,00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사업은 울산공장 인근 양정동과 염포동에 소속된 자원봉사 단체의 프로그램 중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7개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며,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울산·부산·대구 안너 회장단, 친선골프 모임 개최**  
 울산·부산·대구 안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단이 친선골프 모임을 개최하고, 각 지역 안너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신규 안너 회원 확대와 봉사 활동 전개 등 안너 소사이어티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울산 안너 소사이어티 클럽 박환규 회장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에 이웃사랑 성금 5억 8,000여만 원 전달**  
 경기 사랑의열매가 안산시(시장 이민근)에 2022년 상반기 이웃사랑 성금 5억 8,207만 8,907원을 배분했다. 배분금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과 고독사 예방 기획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 시민을 위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육군 제7공병여단 흥예대대, 착한일터 가입**  
 지난 9월 14일 육군 제7공병여단 흥예대대(대대장 박영규)가 경기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가입식에 참석한 박영규 대대장은 "많은 동료들이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단체 기부를 하면 더 큰 행복을 누릴 것 같아 가입을 결심했다"며 "다른 부대에도 나눔의 기쁨을 전파하는 모범적인 부대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북부



**추석맞이 건강한 명절 나기 지원 사업 실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추석을 맞아 건강한 명절 나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총 5억 3,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 불황과 고물가, 폭우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기획했다.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한 중위 소득 120% 이하 세대에 명절 지원금을 비롯해 과일, 송편, 명절용품 등 현물을 지원했다.



**하나금용나눔재단, 남양주시 아동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  
 하나금용나눔재단이 남양주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의 지원, 임직원 성금으로 마련했으며, 남양주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167명에게 지원했다. 재단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이 곳곳에 퍼져 아동들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원



**춘천시 나눔봉사단, 추석 명절 행복박스 선물**  
 춘천시 나눔봉사단(단장 한금동)이 저소득층 300가구에 명절 음식 등으로 구성된 행복박스를 선물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2015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 기간에 행복박스 지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과, 국수, 통조림 등 일품 가지 물품을 담은 행복 박스는 명절 연휴 동안 도시락 배달 및 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과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전달했다.



**2022년 신규 기획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 교육 진행**  
 강원 사랑의열매가 지난 9월 7일 2022년 신규 기획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백신 프로젝트에 6개 기관, 교육·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4개 기관, 사회적 돌봄 프로그램에 3개 기관 등 세 가지 주제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간은 올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



**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충북 68호 아너 가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정범 의원이 충북 사랑의열매 68호 아너로 가입했다. 선거에 출마하며 당선될 경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세비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이 의원은 연간 2,500만 원씩, 4년 내에 1억 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정하며 아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낮은 자세로 행동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 착한일터 동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센터장 김승희)가 착한일터에 가입하며 홀몸 어르신을 위한 성금 45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앞으로 임직원은 매달 정기적인 급여 나눔을 통해 연간 약 1,2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충북 도내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소규모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



**충남 아너 소사이터티 클럽, 천안 지역 모임 개최**  
 지난 9월 20일 천안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활동하는 아너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임에는 올해 초 아너 회원으로 가입한 박상돈 천안시장과 충남 아너 소사이터티 클럽 임원진, 천안에서 활동하는 아너 회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충남 사랑의열매 배부 현황과 아너 소사이터티 클럽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주)에이치원건설,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나눔 실천**  
 공장 건축시공으로 이름난 (주)에이치원건설(대표 조중구)이 3년간 총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충남 사랑의열매 16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조중구 대표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더욱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의 명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추석 명절 이웃 돕기 성금 기탁**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가 추석을 맞아 전북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윤방섭 회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인 모두가 ‘혁신으로 상생 건설, 비전으로 희망 건설’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순창우체국, 저소득층 보험 가입 지원 업무 협약**  
 전북 사랑의열매가 순창군, 순창우체국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안심보험(행복보험)’ 무료 가입을 추진한다. 행복보험은 순창우체국이 제안한 재해보험으로, 1년간 보장하는 공익형 보험 상품이다.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15~64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약 1,100명이 신청 대상이며, 1년간 재해로 인한 입원·수술비와 사망 시 유족 보장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남



**강진군 장애인 가구에 신축 주택 지원**  
 전남 사랑의열매가 주택 신축 매칭 그랜트 지원 사업을 통해 강진군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신축 주택을 지원했다. 해당 주택은 강진군 사랑의 집짓기 제37호 가구로, 지붕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던 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전남 사랑의열매 2,500만 원, 강진군 1,200만 원, 강진호도회 800만 원, 위성식 아너 회원 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완공했다.



**더미래갤러리, 착한가게 가입하며 나눔 동참**  
 더미래갤러리 프리미엄 가구 백화점(대표 김윤희)이 전남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1003호점으로 가입했다. 성금은 무안군 관내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김윤희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청소년 장학금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가 도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청소년 장학금 1억 원과 영유아 보육비 5,0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청소년 장학금은 김천·영주·영천시와 청도·예천군 등 5개 지역 초·중·고생 200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했으며, 영유아 보육비는 구미·상주시와 청도·성주군 등 4개 지역 100가구에 50만 원씩 지원했다.



**2022년 추석 명절 지원 사업비 15억 원 배분**  
 경북 사랑의열매가 2022년 추석 명절 지원 사업비 15억 원을 배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난해 추석 명절 지원금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경북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군의 추천을 받아 총 1만 5,000여 명에게 전달했다.

경남



**김준연·박상순 부부, 경남 12호 부부 아너**  
 (자)동원유지 김준연 전부가 아내인 (자)동원유지 박상순 대표이사에 이어 아너로 가입하며 경남 사랑의열매에 12호 부부 아너가 탄생했다. 부부는 동물 사료 제조업체인 (자)동원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교육 발전에 관심이 많아 사천시 남양중학교에 동원유지 장학회를 설립해 발전 기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공감 온(溫)택트 캠페인 성금으로 추석 물품 지원**  
 경남 사랑의열매가 취약 계층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한 '지역공감 온(溫)택트 캠페인'으로 마련한 성금 2,062만 원을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성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과일과 한과·소고기·마스크 등 11종의 물품을 구매해 키트를 제작하는 데 사용했으며, 저소득 장애인 120세대에 추석 선물로 전달했다.

제주



**SCL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의료 취약 계층 위한 나눔 참여**  
 국내 최초 검사 전문 기관 SCL (재)서울의과학연구소가 지난 8월 개학을 앞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제주 사랑의열매에 자가 진단 키트 1만 개를 기부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의료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을 각각 3,000만 원씩 기부하며 지역사회 의료 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데뷔 6주년 기념 성금 기탁**  
 가수 임영웅의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제주'가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기념해 제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미혼모 보호시설 꿈꾸는다락방과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를 통해 도내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쓸 예정이다. 영웅시대 제주는 식료품과 가전제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종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  
 세종 사랑의열매가 최민호 세종시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지난 9월 5일 세종시청에서 제2대 명예회장 추대식을 진행했다. 추대패를 전달받은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만큼 이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명예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 시민 모두가 명예회장이라 생각하고 나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승산업개발(주), 세종 6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금승산업개발(주)(대표 박상재)이 3년간 1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세종 사랑의열매 6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박상재 대표는 "나눔명문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나눔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브라보(bravo)! 언제나 청춘인 당신을 위하여**

과거엔 환갑을 맞이하면 최고 어른으로 대접했으나, 지금은 '액티브 시니어'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로 아직 좋을 때다.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언제나 청춘인 이들이 자신의 열정을 꽃피울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는 아낌없는 지원을 보낸다. 또한 누구나 품위 있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새 나라, 새 일꾼**  
**신입 직원 김예설** Yes, sir!  
8화 - 전국 직원 워크숍

‘희망2023나눔캠페인’ 준비를 위한 전국 직원 워크숍  
필기!

사랑의열매 직원분들 오랜만입니다.  
올해 캠페인도 어려울 것 같지만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봅시다!

잘 지냈어? 요즘 어때?  
오...오랜만이야!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만 모이게 되어 아쉽네요.

좋은 의견들 있을까요?  
작은 기부로도 큰 감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내 기부금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궁금해하거든요.

맞아요. 최근 \*나눔문화연구소 연구 결과를 보면 기부 후기나

그보다는 사랑의열매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결과 보고에 대한 니즈가 컸어요.  
모두 많이 고민해왔구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설!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 너무 좋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너무 좋아!

이번 캠페인 우리 잘해보자!!  
갑자기 왜 저래?  
뭐...뭐야 무서워

다음 화에 계속...

\*나눔문화연구소: 나눔문화와 사회복지 의제를 연구하는 사랑의열매의 연구소